순교자의 소리

The Voice of the Martyrs

2025.4

우리의 영원한 가족

폴리 목사 부부가 전하는 글

그들은 지금

오늘은 '그들은 지금'이라는 타이틀로 몇 년 전에 소식지를 통해 나눈 간증의 최근 소식들을 전하려고 합니다. 우리에게 용기를 주는 형제자매들의 근황을 소개할 수 있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이 귀한 성도들을 알고 있든 그렇지 않든, 수년 동안 그들의 삶에 주님이 어떻게 일하셨는지를 보게 된 것은 우리 모두에게 큰 축복일 것입니다.

폴린의 남편은 17년 전 순교했고, 수잔은 불과 11살에 6개월 동안 구타를 당하고 벽장에 갇혀 지냈으며, 하완 목사는 베트남 부족들에 복음을 전한 죄로 11년 넘게 감옥에 갇혀 지냈습니다.

이번 호에서 이들의 이야기를 읽다 보면, 극도로 힘겨운 상황에서도 이들 모두가 하나님의 임재와 돌보심을 깊이 느끼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또한 이들은 자신을 위해 기도하고 그들을 함께 보살피기 원하는 전 세계 한 몸 된 지체들 모두가 한 가족이라는 점도 잘 알고 있습니다.

순교자의 소리 웹사이트에서는 30년 넘게 수단 난민들을 섬겨온 모리스 Morris 목사 부부에 관한 놀라운 간증과 그 뒷 이야기인 '그들은 지금'을 추가로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SCAN ME!

우간다
- 메마른 뼈들에게 생기를

우간다의 수잔 이퉁구는 이슬람교도인 아버지에게 끔찍한 학대를 받았다. 그 학대로부터 해방된 지 10년이 지난 지금, 수잔은 그리스도의 몸 안에서 영원한 피난처를 찾았다.

어둡고 비좁은 벽장에 갇혔던 그때, 수잔 이퉁구Susan Ithungu의 나이는 11살이었다. 기독교 개종 후 세례를 받은 날부터 아버지의 학대가 시작되었고, 심한 구타와 생명의 위협에도 그리스도를 향한 딸의 믿음이 꺾이지 않자 결국 아버지는 수잔을 어둠 속에 가두어 죽이려 했다. 이따금씩 오빠가 몰래 와서 구운 바나나와 물을 넣어 주었지만, 당국에 학대 사실이 보고되어 2010년 9월 구조되기까지 수잔은 거의 6개월 동안 벽장에 갇혀 지냈다.

구조 당시 수잔의 체중은 20kg에 불과해 성장이 멈춘 상태였고, 말라리아를 제때 치료하지 못해 온몸이 상처투성이였다. 이후 수잔은 1년 여 동안 병원에서 13번의 수술을 받으면서 손상된 신체 기능을 겨우 회복해야 했다. 10년이 흐른 지금도 수잔은 목발을 짚고 다녀야 하지만, 그때와는 전혀 다른 관점으로 삶을 바라보고 있다. "행복해요. 기독교인이 되고 그런 일이 일어났을 때부터 병원에서 지낼 때까지 과연 회복이 될 수 있을지, 학교에 다시 다닐 수 있을지 알 수 없었지만… 돌이켜보면 하나님이 항상 나와 함께 하셨고, 난 한번도 혼자가 아니었어요. 그래서 앞으로 어떤 일이 닥치더라도 하나님이 나를 도우실 것을 믿어요." 수잔이 말했다.

순교자의 소리 사역자들은 처음 수잔을 만났을 때 오히려 그녀의 강한 믿음과 긍정적인 자세에 큰 힘을 얻었다. 그리고 최근 더 큰 변화를 발견하게 되었다. 한 사역자는 "수잔은 내가 지금까지 만난 사람 중 가장 활달하고 건강한 사람이에요. 과거 일을 몰랐다면, 절대 그런 일을 겪은 사람이라고는 상상할 수 없었을 거예요"라고 말했다. 현재 수잔은 11학년(고등학교 2학년)을 마치고 미래를 계획 중이다. 그녀의 꿈은 언론사 기자가 되는 것이다.

하지만 수잔에게 쉽지 않는 게 있었다. 아버지를 용서하는 것이었다. 그러나 용서는 그녀에게 다른 형태의 자유를 가르쳐주었다. 수잔은 다시 아버지와의 대화를 시도하고 있다. 아버지는 여전히 잘못을 뉘우치지 않고 과거에 가했던 고통도 모두 그녀가 개종한 탓이라고 비난하지만, 수잔은 아버지를 마

▲ 2013년 12월호

◀ 수잔의 믿음과 긍정적인 자세는 그녀의 삶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드러낸다. (수잔의 현재 모습)

주해 그를 용서하기 위해 노력한다. "아버지를 보기만 해도 화가 날 때가 있어요. 하지만 그때마다 마음을 다잡고 용서해야 한다고 되새깁니다. 하루도 빠짐없이 아버지를 생각하고, 항상 아버지를 위해 기도해요."

수잔은 에스겔 선지자가 마른 뼈로 가득한 골짜기를 바라보는 에스겔 37장에 특별한 유대감을 느낀다. "메마른 뼈들이 다시 살아나는 내용이잖아요. 그게 바로 주님이 내 영혼에 행하신 일이지요. 앞으로 내 육체 가운데도 그 일을 행하시길 기도하고 있어요."

수잔은 한 번 더 수술을 앞두고 있고, 이번이 마지막이길 소망한다. 올해 그녀는 전 세계 그리스도의 지체들로부터 작은 집을 선물로 받고 깜짝 놀랐다. 학교 근처에 자리한 작은 집은 도로에서 떨어져 있어 평화롭고 안전한 온기를 주는 안식처가 되어주고 있다.

(순교자의 소리는 2013년 처음 수잔의 이야기를 전하면서 그녀를 지원하기 시작했다.)

베트남

- 열매 맺는 믿음의 세대

하완은 베트남에서 목사라는 이유로 투옥과 궁핍을 겪었지만, 양육한 기독교인들에게 변하지 않는 깊은 믿음을 유산으로 남겼다.

베트남 목회자들 사이에서 하완Ha Wan은 그 용기와 인내로 인해 거의 전설과도 같은 인물이다. 먼 지방의 전도자나 성경 교사들도 그의 이름을 알고 있으며 그가 실천한 방법으로 복음을 전하고 있다. 하지만 아내인 히엔Hien에게 하완은 그저 겸손히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했던 동역자이자 사랑하는 배우자였다. 히엔은 그와의 결혼 생활을 떠올릴 때면 특별했던 연애 시절이 생각나 웃음을 터뜨리곤 한다.

1973년 젊은 전도사였던 하완은 히엔이 살던 지역에서 사역을 시작했고, 이를 알아챈 당국이 그를 체포했다. 당시 아직 10대 소녀였던 히엔은 베트콩Viet Cong, 베트남 공산당 게릴라 복장으로 위장해 몰래 현지 감옥에 들어가 그를 탈출시켰다. 이 탈옥을 계기로 두 사람은 결혼과 사역이라는 평생의 관계를 함께하게 되었다.

월남전이 발발하고 공산당이 정권을 잡았던 결혼 초기, 어떤 기독교 예배나 전도 활동도 할 수 없을 정도로 어려운 상황이었다. 하지만 히엔과 하완은 어린이들을 모을 방법을 찾아내 30여 명의 어린이들에게 성경을 가르쳤다. 이로 인해 하완은 계속 체포를 당하게 되었다. 며칠 만에 풀려나기도 했지만, 3년 가까이 수감된 적도 두 번이나 있었다. 베트남 부족들에게 복음을 전했다는 이유로 그가 감옥에서 보낸 시간은 총 11년이 넘는다.

며칠이든 몇 년이든 남편이 수감되어 있는 동안, 히엔은 지역 어린이들에게 계속 성경을 가르치는 한편 가족도 부양해야 했다. 먹을 게 없거나 하완을 면회할 돈이 없을 때, 히엔은 모든 필요를 채워주실 하나님을 의지했다. 하나님의 공급하심은 때로 그녀가 신실하게 가르치던 아이들의 손을 통해 채워졌다. 아이들은 어렸지만 베푸는 마음을 갖고 있었다. 한번은 감옥에 있는 하완에게 음식을 넣어주기 위해 3만 동(약 5달러)이 필요했는데 돈을 구할 수 없던 날이 있었다. 무릎을 꿇고 기도하던 히엔에게 30명의 아이들이 돈을 모아 가져왔다. "하나님이 아이들을 통해 기도에 응답하신 거지요." 그때 가르치던 그 어린이 성경 공부반은 현재 600명이 넘는 어린이가 정기 출석하는, 지역 내 가장 큰 교회로 성장했다.

감옥에 있던 하완과 기독교 지도자들은 동료 수감자들에게 기쁘게 복음을 전하는 한편, 다른 부족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핍박 속에서도 더 많은 이들을 제자삼고 양육하기 위한 비전을 세웠다. 이들이 수립한 사역 훈련 계획은 지금까지 베트남 전역에 큰 영향을 미쳤다. 2년의 훈련 과정에서 학생들은 2학년 진급을 위해 100명에게 복음을 전해야 하는데, 이 실습을 통해 학생들은 1학년 때 배운 전도 이론을 현장에 적용할 수 있게 된다. 이렇게 훈련된 학생 대부분이 교회 지도자 및 교사의 역할을 맡으면서 전국 교회와 지역 사회를 변화시키고 있는 것이다.

"하나님은 아주 특별한 방법으로 남편을 사용하셨어요. 많은 역경을 마주했지만 남편은 포기하거나 낙담하지 않았어요. 마지막 숨을 거둘 때까지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히엔이 말했다. 건강이 점차 악화되면서 장기간 투병 생활을 하던 하완은 2021년 6월 5일, 세상을 떠났다. 억압적인 공산주의 정부 아래서 수년간 투옥과 궁핍한 삶을 견디며 신앙을 지킨 하완은 많은 이들에게 믿음의 유산을 남겼다. 특히 아들 엠마누엘Emmanuel은 "아버지가 남겨준 건 돈이나 재산이 아닌, 좋은 평판과 명예였습니다. 여러 곳을 다닐 때마다 아버지를 존경하고 사랑하는 사람들이 감사한 마음을 표현해요. 아버지는 따라가야 할 훌륭한 본이 되어주셨어요"라고 고백한다. 현재 엠마누엘은 어린이 성경반에서 시작된 교회를 섬기면서, 여러 마을을 다니며 조상 숭배를 하는 부족들에 복음을 전하고 있다.

(순교자의 소리는 1995년부터 하완 가족과 교제해왔다.)

어린이 사역은 월남전 당시부터 베트남 교회 성장의 핵심이 되어왔다.

베트남에서 성경은 합법이지만, 공산당 정부는 전도와 예배를 제한하고 있다.

2025년
4월 기도 달력

facebook.com/VOMKorea.kr
instagram.com/vomkorea
youtube.com/voiceofthemartyrskorea

SUNDAY	MONDAY	TUESDAY	WEDNESDAY	THURSDAY	
		1	2	3	4
		부룬디 이슬람교에서 개종한 이들을 교회가 계속 양육하고 지원할 수 있도록	차드 차드호 유역에서 기독교인을 겨냥한 보코하람의 공격이 끝나도록	리비아 성경을 갖기 힘든 모든 기독교인이 성경책이나 오디오 성경을 갖게 되도록	토
6	7	8	9	10	11
말리 다른 목회자들을 위해 성경을 배급하는 자크 목사를 위해	나이지리아 보코하람을 비롯한 이슬람 테러 집단이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도록	이라크 이라크 국민에게 복음을 전하는 위성TV, 라디오, 인터넷 사역자들을 위해	브루나이 브루나이 국민이 복음을 들을 수 있는 기회가 더 많아지도록	코모로 이슬람교에서 개종한 뒤 가족들에게 핍박받는 새신자들을 위해	투
13	14	15	16	17	18
쿠웨이트 실직과 추방을 각오하고 복음을 전하러 온 외국인 기독교인들을 위해	알제리 '무허가 예배'로 실형을 선고받은 무슬림 출신 목회자를 위해	투르크메니스탄 억압과 괴롭힘에 직면한 기독교 개종자들에게 지혜 주시기를	리비아 큰 위험을 무릅쓰고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들과 토착민들을 위해	우크라이나 전쟁 중임에도 최근 어린이 성경을 받은 만 명의 어린이들을 위해	마
20	21	22	23	24	25
라오스 믿음을 부인하지 않아 실직한 시포른이 계속 신실한 증인이 될 수 있도록	코모로 토착어로 성경을 번역할 번역자들을 하나님이 더 많이 보내주시기를	아랍에미리트 교회가 무슬림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창의적인 방법을 찾도록	레바논 핍박받는 타국의 성도들이 레바논에서 피난처를 찾은 것에 감사	이집트 폭력을 피해 이집트에 온 수단 피난민들을 전도할 수 있게 하심에 감사	25
27	28	29	30		
베냉 믿음 때문에 핍박받는 르네와 레베카 및 여러 성도들을 위해	미얀마 로힝야 무슬림 부족에게 복음을 전하는 담대한 사역자들을 위해	파키스탄 81명이 목숨을 잃은 2013년 교회 폭탄 테러의 생존자들을 위해	멕시코 신실한 증언으로 남편과 이웃에게 40번 넘게 구타당한 가브리엘라를 위해		

순교자의 소리 The Voice of the Martyrs

[사무실] 서울시 성북구 솔샘로 26, 지층 순교자의 소리
후원계좌: 국민은행 463501-01-243303 예금주: 사)순교자의소리
www.vomkorea.com || 02-2065-0703

지금 보고계신
순교자의 소리 무료 소식지,
아래 QR코드를 스캔하셔서
간편하게 신청하세요!

	FRIDAY	SATURDAY
	4	5
	토고 전통 종교를 믿는 많은 토고 주민이 영적 속박에서 자유케 되도록	몰디브 몰디브의 새신자들이 믿음 안에서 양육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리도록
	11	12
	멕시코 복음을 전하다가 여러 번 투옥되고 마을에서 쫓겨난 목회자를 위해	수단 이슬람 집단 간의 싸움으로 난민이 된 성도들의 필요를 채워주시기를
	18	19
	탄자니아 마지막 남은 미전도 종족의 언어로 성경을 번역하는 사역을 위해	바레인 바레인 토착민들이 마음을 열고 복음을 받아들이게 하심에 감사
	25	26
	인도네시아 불법이라는 위험에도 기독교인들이 담대히 복음을 전하도록	중국 필요한 모든 방법을 동원하여 중국에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믿음 때문에 수감된 성도들의 가족을 어떻게 도울 수 있을까요?

한국 순교자의 소리의 '순교자 및 수감자 가정 지원(FOM/FOP)'를 통해 이번 호에 소개된 기독교인 수감자 및 순교자 가족들을 지원하는 데 직접 동역할 수 있습니다.

2024년 말, 단 몇 달 동안에도 이 헌금을 통해 중국에 수감된 목회자들의 아홉 가정에 생활비를 지원했으며, IS에 의해 살해된 부르키나파소의 기독교인 순교자들의 아내들이 자립해 생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도울 수 있었습니다.

이 헌금이 정말 귀한 것은 이들의 생계에 도움을 주었을 뿐만 아니라, 받는 이들 모두가 하나님이 계속 그들을 신실하게 돌보심을 믿을 수 있게 해주었다는 사실입니다!

순교자의 소리는 지난 2024년, 이 헌금으로 부르키나파소, 시리아, 나이지리아, 라오스, 파키스탄, 타지키스탄 및 중국의 순교자와 수감자 가족들을 도울 수 있었습니다.

기독교 순교자 및 수감자 가족을 지원하는 이 귀한 사역에 동역하기 원하시는 한국 교회나 성도님은 아래 두 가지 방법 중 하나를 이용해주시기 바랍니다.

1. 순교자의 소리 웹사이트: **www.vomkorea.com/donation**
   (납부 유형에서 '**순교자 및 수감자 가정 지원 사역FOM/FOP**' 선택)
2. 계좌이체
   국민은행 463501-01-243303
   예금주: 사)순교자의 소리
   (본인 성명 옆에 '**순교자**'라고 기재해주세요.
   그렇지 않으면 일반 후원금으로 사용됩니다.)

scan me!

한국기독교재정투명성협회
Christian Council for Financial Transparency Korea
1호 인증

가자지구 및 서안지구
-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폴린의 남편은 17년 전, 믿음 때문에 가자지구에서 살해당했다. 현재 폴린은 남은 가족들의 안전을 위협하는 전쟁에도 불구하고 서안지구West Bank, 웨스트 뱅크로 이스라엘의 요단강 서편 일대를 일컬음에서 자신처럼 남편을 잃고 혼자가 된 기독교인 여성들을 섬기고 있다.(이 인터뷰는 이스라엘과 하마스의 휴전 협정 전에 진행되었음)

폴린 아야드Pauline Ayyad는 자신의 감정을 드러내는 데 주저함이 없다. "요즘 잘 지내고 있지는 못해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곳 상황이 매우 어렵거든요"라고 폴린은 말했다. 이스라엘 방위군과 하마스Hamas 테러 조직 간의 전투가 격화되는 가운데, 가자지구의 한 교회로 피신한 가족과 친척들을 걱정하고 있는 때였다.

"모두 위험에 처해 있습니다. 어머니와 아버지, 외삼촌 가족, 두 동생의 가족까지 모두가 한 방에서 생활하고 있어요." 75세인 폴린의 부모를 포함한 13명의 가족은 바닥에 매트리스를 깔고 잠을 자며 매일 음식과 약을 구하기 위해 고군분투 중이다. 그들은 계속된 폭발 소리와 함께 살고 있으며, 인근에서는 매일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다.

"가족들을 도울 방법이 없어요. 할 수 있는 건 그저 기도뿐입니

▲ 2007년 폴린 가족의 모습

▲ 2019년 폴린 가족의 모습

▼ 현재 폴린 가족의 모습

▲ 폴린 가족과 친척 중 일부는 계속된 분쟁으로 위협받고 있는 가자지구에 남아있다.

다.” 폴린이 눈물을 흘리며 말했다. 눈물을 닦으면서 폴린은 그 기도와 주님의 보호하심이 가족을 살리고 있음을 믿는다고 고백했다.

하지만 폴린은 수 년 전 남편 라미Rami가 살해당했을 때와 마찬가지로 계속 살아갈 방법을 찾아냈다. 라미 아야드는 가자지구에서 유일한 기독교 서점에서 관리자로 사역 중이었다. 가자성서공회에 소속된 사역지였다. 2007년 10월 7일 저녁, 서점을 나서던 라미는 납치를 당했다. 납치된 직후 라미는 폴린에게 단 한 번 전화를 걸 수 있었는데, 그것이 라미와의 마지막 통화였다. 다음 날 아침 라미의 시신이 발견되었다.

라미의 죽음은 당시 임신 중이던 폴린에게 크나큰 충격이었다. 그녀는 깊은 슬픔에 빠져 괴로워했지만, 주님은 몇 년 동안 그녀가 남편을 살해한 자들을 용서할 수 있게 인도하셨다.

라미가 사망한 뒤, 폴린과 아이들은 가자지구에서 이스라엘 서안지구로 이주했다. 아버지 없이 성장하는 것은 아이들에게 매우 힘든 일이었는데, 최근 고등학교를 졸업하게 된 장남 조지George에게 특히 더 그랬다. “남편이 사망하던 당시 조지는 벌써 세 살이었기 때문에 다른 애들보다 아버지의 죽음을 더 크게 느꼈어요.” 폴린이 말했다. 조지는 학교에서 때로 분노를 표출하곤 했는데, 특히 다른 학생들이 아버지와 대화하는 모습을 보고 나면 더 힘들어했다.

최근 폴린은 하나님이 자녀들의 마음을 치유해 주셨다고 고백했다. “항상 아이들을 위해 기도했어요. 하나님은 특별한 손길로 아이들 각자를 만져주셨고, 아이마다 겪고 있던 각기 다른 어려움들을 극복하도록 도와주셨어요.”

조지는 2년 전 한 청소년 수련회에서 하나님의 만지심을 깊이 느꼈다. 그곳에서 주님이 자신을 사역자로 부르시는 것을 깨달은 후, 조지는 자신의 삶을 그리스도께 온전히 드렸다. 폴린은 “우리 모두가 조지의 삶, 특히 학업에서 일어난 기적을 보게 되었어요. 조지가 받은 부르심이 삶에 변화와 치유를 가져다준 거예요”라고 말했다.

하지만 조지가 현관문을 나설 때마다 폴린은 걱정이 앞선다. 서안지구는 가지구보다 안전하지만, 가족 중 폴린과 위삼Wissam, 사마Sama 두 아이만 이스라엘 정부의 거주 허가를 받았기 때문이다. 서류가 처리될 당시, 조지는 기준보다 나이가 더 많아 법률적으로 다르게 분류되면서 서안지구 거주 허가를 받을 수가 없었다.

폴린은 조지 또한 거주 및 이동 허가를 받고, 모든 자녀가 주님과 동행하며 그들을 향한 주님의 목적을 이루도록 함께 기도해 달라고 요청했다.

또한 폴린은 지역 교회에서 만난 15명의 여성들을 위한 기도도 요청했다. 모두 남편을 잃고 혼자가 된 여성들이었다. “이 여성들을 섬길 때 어려운 점이 많아요. 우리가 사는 곳은 전쟁 중이고, 내가 섬기는 많은 여성이 일자리를 잃었어요. 그들의 자녀들 역시 직장을 잃었고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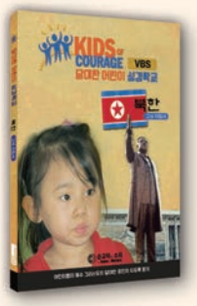
폴린은 또한 이렇게 덧붙였다. “그리스도와 하나님을 향한 내 믿음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롬 8:28)’는 말씀을 여전히 믿고 있습니다.”

폴린은 전 세계 그리스도의 몸 된 교회들에 서안지구와 가자지구를 포함한 이스라엘의 평화를 위해 기도해 달라고 부탁했다. “평화가 임하도록 기도해주세요. 모두에게 공의로운 진짜 ‘평화’ 말이예요. 우리에겐 그런 평화가 필요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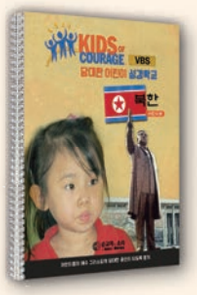
(순교자의 소리는 2013년 처음 폴린의 이야기를 전하면서 그녀를 지원하기 시작했다.)

〈담대한 어린이 성경학교〉 – 북한/중국/나이지리아/인도/이집트 편

교회 주일학교(여름/겨울 성경학교), 대안학교, 홈스쿨 최고의 교재!



교사용 12,000원



어린이용 7,000원

각 나라 별로 교사용 교재와 활동을 위한 어린이용 교재가 별도 제작되어 있습니다.

- 유치원생부터 6학년 어린이를 대상으로 한 맞춤형 교재
- 성경 속 영웅들의 이야기와 함께 핍박 속에서도 믿음을 지킨 기독교 어린이들의 담대한 삶을 가르치고, 그 속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배움으로써 담대한 다음 세대 기독교인으로 성장하도록 준비시키는 교육 과정
- 핍박 국가의 상세 정보 및 문화적 배경, 시간별 수업 활동, 성경 암송 구절, 게임, 만들기 및 심화 학습 활동 자료 포함
- 미국, 캐나다, 유럽 등의 어린이 컨퍼런스에서 테스트한 결과 교사 및 가족, 참가자들로부터 지속적으로 긍정적인 평가를 받음
- 교사 지침서와 어린이 활동 교재 별도 제작

<담대한 어린이 성경학교 교사 강습회>

- **일시:** 2025년 4월 19일 토요일 오전 10시-오후 3시
- **강사:** 순교자의 소리 대표 현숙 폴리 목사
- **장소:** 순교자의 소리 서울 사무실(성북구 솔샘로 26 지층)
- **회비:** 50,000원(점심 및 교사 지침서 포함)
- **신청 방법 및 문의:** 02-2065-0703/010-3151-2065 (화-토 9:00-5:00)

2025 하반기 순교자의 소리 지하신학교 3기생을 모집합니다!

'복음'이란 예수님의 정체성과 예수님의 행하심에 대한 온전하고 신실한 6가지 신앙고백입니다. 이 복음을 온전하고 신실하게 고백할 때만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됩니다. 그 어느 때보다 오늘날 한국 교회와 기독교인들이 사도들이 전했던 이 6가지 신앙고백을 말씀을 통해 깊이 배움으로써 예수님을 우리 죄를 위해 돌아가신 분, 그 이상의 온전한 의미로 이해하고 그분의 재림을 향한 소망을 꿈꿔야 합니다!

지하신학교 1기생들의 참여소감을 나눕니다!

정00 목사님 한국 교회가 복음에서 비껴나가 있는데, 진짜 복음으로 돌아가는 운동이 일어나야 한다고 생각했다. 목회자에게는 끊을 수 없는 '부흥'에 대한 유혹을 끊을 수 있는 용기가 생겼다. 고난을 감수하고 세상적인 것을 버리는 용기를 가질 수 있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죽으신 분'이라고만 집중했는데 그분의 탄생, 죽으심, 묻히심, 부활, 승천, 재림까지 똑같이 중요하다는 것을 알게 되면서 복음을 폭넓고 입체적으로 보게 되었다. 목회를 준비하는 신학생들과 특히 목회자가 꼭!!! 들어야 한다.

이00 집사님 '지하교회로 살라' 도서의 6가지 성경 읽는 방법으로 복음을 더 자세히, 깊이 알게 되었다. 이 훈련으로 성경 어느 구절을 보아도 복음이 드러나고, 하나님과 하나님의 행하심이 드러나는 것을 보게 되었다. 마지막 시대, 핍박과 고난의 상황에 어떤 신앙생활을 할지,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지에 대하여 지하신학교는 말씀으로, 주님께로 당신이 나아가 걷게 하는 과정이다.

이00 목사님 오랫동안 사역자로 사역해도 말씀에 대하여 희미했었고, 큰 교회, 큰 모임, 세미나에서 말씀이 아닌 많은 다른 것들로 산만해지고, 지쳐있는 상태에서 진짜 생수를 말씀 자체에서 마실 수 있었다. 지하신학교에 가보라, 그리스도가 계시다!

차00 집사님 예수님께 나아가는 데 어떤 다른 중재자가 필요 없고, 누구든지 성령님을 통해 말씀을 깨닫고 하나님께 직접 나아갈 수 있다는 진리를 깨닫게 되어 감사하다. 근본적인 해답이신 예수님을 말씀 안에서 온전히 찾게 되면 인생의 어떤 문제와 어려움도 이길 수 있다. 하나님을 더 알고 더 사랑하기 원한다면 말씀이신 주님을 보게 하는 이 과정을 들어보기 바란다.

박00 목사님 지금의 교회는 초대교회를 떠나 세상 시스템에 의지하고 있기 때문에 복음의 깊이가 얕은데, 복음에 대해 더 잘 알게 되었다. 예전의 설교는 사람과 행위에 집중되어서 듣는 사람도 부담 속에서 들었는데, 이제는 6가지 주제로 성경이 열리고 무궁무진하게 설교를 준비할 수 있다. 진짜 복음을 알 수 있는 아주 놀라운 과정이다.

- **6개월 과정:** 토요일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월 1회(6/14, 7/12, 8/23, 9/13, 10/18, 11/15)
- **훈련비:** 400,000원 (6개월 과정, 식사 제공)
- **강사:** 순교자의 소리 에릭 폴리 목사/현숙 폴리 대표
- **장소:** 순교자의 소리 서울 사무실(구체적인 사무실 정보는 등록 시 알려드립니다.)
- **신청방법 및 문의:** 010-3151-2065 / 02-2065-0703

※ 지하신학교는 목회자와 성도, 모든 기독교인이 신구약 말씀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도록 훈련합니다. (별도의 학위는 없습니다.)

일정 및 강의 내용

6/14	때가 차매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다윗의 자손으로 한 여자에게서 나게 하셨다.
7/12	예수 그리스도는 성경대로 우리 죄를 위해 죽으셨다.
8/23	예수 그리스도는 장사 지낸 바 되셨다.
9/13	예수 그리스도는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
10/18	예수 그리스도는 하늘에 오르사 아버지 우편에 앉으셨다.
11/15	예수 그리스도는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기 위해 다시 오실 것이다.